

# 80년대 출판물 어떻게 볼 것인가

## 사회적 의미와 문화적 의미

李重漢

서울신문 논설위원 · 출판평론가

80년대 출판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질문은 나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출판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의 질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느냐는 각자의 자유이다. 특히 80년대 그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시각의 넓이는 대단히 크고 다양할 수 있다. 당연히 그 시각차 역시 클 수 있다.

우선 민주화를 향한 운동적 시각에서는 출판에 있어서도 80년대는 위대한 연대일 수 있다. 거의 모든 영향력이 출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이 연대이다. '출판운동'이란 표현이 별도로 나와 있는 형편이지만, 굳이 출판운동을 했다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출판에 제한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운동적 출판은 출판계를 석권했다. 우리는 이 현상을 현상 자체로는 인정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을 과연 80년대 출판의 중요한 성취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적어도 나에게서는 그러하다. 나는 이 현상이 운동적 관점에서는 성취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한 나라의 정신적·지적·교양적 기반으로서의 출판매체의 역할과 의미에서는 출판물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했고 또한 관련 읽기의 성향을 편향화시켰다는 또다른 맹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 과연 무엇이 값진 성취인가

이 경우로 볼 때 시각차의 폭이 얼마나 큰가는 분명히 드러난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사회적 의미와 문화적 의미의 차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 관점에서 놀랄만큼 성공한 시집과 수필류 도서들도 거론할 수 있다. 시집과 수필류들은 개별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베스트셀러의 절대부수를 경이롭게 성장시켰다. 10만부 정도면 흡족해하던 베스트셀러 판매부수를 1백만부까지 끌어올려 놓은 것이 바로 이 시집과 수필집들이다. 그러나 이 역시 1백만부짜리 책을 갖게 되었다는 사회적 의미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과연 우리의 정신적·지적 성장을 뜻하는 것이냐에 대한 문화적 의미는 같을 것일 수 없다. 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단지 너무나 문화적 정서환경이 부재한, 피폐한 사회현상을 반증하는 것 이외에는 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시각차가 일어나는

**출판은 단순한 지적 생산물의 전달매체라기보다는 그 자신이 독립된 문화창조자에 가깝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80년대의 출판은 어려모로 미흡했다. 저자의 원고를 제작해주는 기능적 수준에서가 아닌, 그것이 출판사 자체에서 기획되고 판단됐는가 하는 수준에서 출판의 역량이 가능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학도서의 활발한 출간은, 한국학이란 학문의 역량이지 출판의 역량은 아니었다.**

결과적 현상으로 80년대 출판을 평가하는 입장을 벗어나려 한다. 그리고 보다 본질적으로 출판문화라는 독자적 문화영역에서 출판 그 자체가 얼마나 의미있게 자신의 영역을 개척했는가라는 측면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한다.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우리는 또 정리해두어야 할 관점이 있다. 출판은 단순한 지적 생산물의 전달매체인가, 아니면 그 자신이 독립된 문화창조자인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써놓고 보면 물론 후자가 정답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출판은 전자의 역할로써 탄생된다. 이 역할이 중요치 않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이 역할이 출판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또한 이해해둘 필요가 있다.

이 경우의 예를 우리는 한국학도서들에서 찾을 수 있다. 80년대에 있어 질과 양에서 다같이 놀랄만큼 신장된 목록 중의 하나가 한국사학의 목록들이다. 그러나 이 목록들은 학문적 역량이 신장되었기 때문이지 출판역량이 신장되었기 때문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출판이 독자적 역량의 창조자라면 출판의 평가는 당연히 출판사 자신에 의해서 기획되고 판단된 간행에 의해서만 먼저 논의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다.

### 80년대 출판의 몇몇 도전적 시도들

이 관점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몇몇 목록을 거론함으로써 80년대의 출판을 평가해 보려

한다.

그 중의 하나가 한길사의 「解放前後史의 認識」(1~6)이다. 이 기획출판은 시간적으로도 그 첫권이 79년 10월에 출간된 뒤 여섯권이 지난 10월에 나오으로써 만10년이라는 80년대 전부를 포용하고 있다. 이 책은 기이하게 덮여 있던 해방전후의 정황을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의 현대사를 보는 시야를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새 쟁점들을 무더기로 제시했다. 때문에 이 책이 중도에 판금의 제재를 받았던 것은 오히려 당연한 반응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책이 시중에서도 충분히 잘 팔렸다는 것보다 의미있는 것은 기획출판의 典型과 그 성과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悅話堂의 「慶州 南山」이다. 출판사의 결정과 직접 운영에 의해서 경주 남산의 사진들이 장기간 촬영되고, 그 반복·제작된 사진들로 이루어진 우리의 세계적 古都 경주는, 문화적 실체가 어떻게 출판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인가를 보여줬다. 이것이 바로 출판이 문화매체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가장 좋은 답안이다. 이런 류의 도서들이 실제로 문화선진국들에 있어서는 출판목록의 중심항목이라는 점이 우리에게서는 아직도 잘 납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책은 또 당연히 판매에 성공한 책은 아니다. 같은 열화당의 「한국의 국」 시리즈와 「장승」 역시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창작과비평사의 「蔡萬植全集」을 들 수 있다. 많은 문학전집들이 새롭게 정리되어 나온 것도 80년대의 특징 중의 하나이지만 「蔡萬植全集」 10권은 그들 중에서도 가장 성실한 전집제작태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전집은 여타 전집들과 같이 반복된 작업들의 재집합도 아니고 그저 전집을 내보자는 발상에 의한 것도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작업이었고, 그리고 蔡萬植의 평가가 80년대에 이루어져야 할 시의적인 적합성까지 갖고 있었다. 출간의 지향이 사회적 시의성을 분명히 잡았던 기획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출판사의 편집력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사례였다.

대규모기획으로서 뿌리깊은나무의 「한국의 발견 / 한반도와 한국사람」이 있다. 서울과 도별로 각각 1권씩으로 이루어진 이 풍속지적

대백과도서는 그 제작방법이나 태도, 그리고 그 효용성에 있어 앞으로 당분간 이를 능가하는 작업이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 작업들은 출판사에 의해 조직된 편집진으로 이루어졌다. 출판사가 완성된 원고를 받아 기능적 작업만을 하는 일로는 그 결실의 한계가 얼마나 제한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해주는 작업이었다.

번역출판에서도 유의할 만한 목록들이 있다. 「오리진」(리처드 리키 / 로테 레인 · 學園社) 「時間의 歷史」(스티븐 호킹 · 三省이데아) 「우주의 암호」(하인즈 페이겔스 · 汎洋社 출판부) 등의 과학교양서의 번역은 우리의 출판수준으로서는 새로운 영역의 개척일 뿐 아니라 실패율이 전제된 하나의 모험적 번역들이었다. 그러나 의외로 판매에서도 성공을 얻었다. 이는 우리의 독자수준이 꼭 고정관념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기쁨을 주었고, 그럼으로써 출판사의 의지로 어떤 내용수준의 개발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출판의 문화적 역할을 강조하고 요구되는 사연이다.

志學社의 「오늘의 世界文學」 시리즈도 언급할 가치가 있다. 해방이전 작품들에 지극히 지루하게도 고착돼 있는 우리의 세계문학 번역 목록을 오늘의 세계문학으로 확대하는 작업은 한길사와 중앙일보사에 의해서도 시도는 됐었다. 그러나 이들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끝을 냈다. 이유는 단순했다. 독자의 수용후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협소한 시장을 향해 팔리지 않는 작품들을 간행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志學社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 30권에 이르러 있는데, 그 목록의 선정도 적합성을 갖고 있다. 움직임이 있고 같이 살고 있는 세계를 동시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문학이야말로 출판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이 간행의 지속은 계속 격려되어야 마땅하다.

10진분류법상 總類에 속하는 辭典·事典類들이 보다 분화되어 간행되기 시작했다는 것도 짚고넘어갈 항목이다. 「우리말 갈래사전」(한길사) 「虛詞辭典」(현암사) 「中國語辭典」(고대민족문화연구소) 「韓國野生花圖鑑」(교학사) 「水産動物名辭典」(현대해양사) 「東洋美術事典」(갑을출판사) 등은 물론 개별적인 개인과 단체들의 연구업적들이다. 그러나 이 사전들의 간행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출판의



80년대 들어 출판의 역할과 발언권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창조와 관련해 출판의 위상이 특별하게 재인식되지는 못했다. (사진은 週末 대형서점에 물린 人波)

기능을 보다 책임감있게 인식하게 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 사회적 시의성 따라간 '뉴스성' 출판

나는 이러한 항목들이 80년대 한국 출판에 말하는데 중시되어야 할 것들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도전적 역할과 그 역할에 의한 출판기능의 확대가 바로 출판의 발전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출판문화 그 자체가 스스로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제작적 기능에 있어서는 80년대에 있어서도 정책적 측면이 더 컸다는 점을 또한 지적해두지 않을 수 없다.

책들은 대부분 그저 있는 조건에 의한 타성으로 만들어졌지 出版美學에 의한 보다 나은 제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判型들은 오히려 80년대에서 신국판형으로 통일되는 경향을 보였다. 소설도 철학서도 역사서도 오락서도 모두 무선철 지장본 신국판형으로 제작되었다. 이 점에서 「民音의文學」 시리즈는 예외적이다. 4·6판 양장본의 소설시리즈를 시작했는데 혼자가는 길이라 아직 그 수용이 정착되기에는 너무나 힘들다.

뿐만 아니라 활판인쇄체제로부터 전산음쇄체제로 제작의 기본틀이 바뀌었는데도 이에 맞는 여러 고려요소들은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 활자체, 행간과 자간들의 새로운 시도, 음쇄인쇄에 적절한 잉크와 용지의 개발과 선택

들의 문제들이 전혀 현실문제로 인지되고 접근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측면들은 결국 전반적인 출판종사자들의 재교육이거나 새교육에 의해서만 변화가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이 점 역시 출판계가 80년대에 새로운 관심이나 문제의식을 가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80년대의 출판은 사회적 시의성을 따라가는 뉴스성 출판으로서만 출판의 역할을 해낸 것이고, 지극히 작은 부분으로서 출판기획의 몇가지 도전적 영역확장을 시도한 것은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도전적 영역이라는 것도 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만 도전적이지, 다른 나라들 출판과의 비교적 측면에서는 뒤늦은 것이다.

### 출판문화의 총체적 비전 정립해야

사회적 역할로서 출판의 힘이 무엇인가를 웅변했다는 점에서 출판이미지를 말해볼 가치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시의적 상황과 조건에 의해 판금과 압수라는 행정조치를 계속 받았기 때문에, 조치를 받은 쪽에서는 '출판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입장을 강조할 수는 있었지만, 전체적 이미지로서는 출판이라는 미디어가 문제의 미디어라는 인식에 더 많이 기여한 것일 수도 있다. 이 得失差가 그렇게 쉽게 분별될 수 있는 것은 아닐 터이나, 그러나 출판이 양식과 교양의 이미지로 더 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얻은 바가 많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80년대의 출판은 사회적 의미로서는 '위험할 정도의 힘을 가진 미디어'의 이미지를, 문화적 의미로서는 '여전히 발전의 여지가 너무 많이 남아 있는 미디어'로서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는 생각을 나는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결과는 사회 전체의 구조적 조건 속에 있다. 80년대에 있어서도 출판의 중심통로인 도서관은 전혀 어느 한쪽 부분도 개선되지 않았다. 도서관은 여전히 死體이며 그것은 더욱 대학입시생들의 공부방 이외의 것은 아니다.

서점의 상황 역시 출판량에 비해한 확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점단위 공간넓이로만 보면 오히려 축소되어 있다. 이 서점 공간규모에 의해 책의 유통이 결정되고 따라서 보다 좋은 책, 보다 개성적인 소수의 책들은 도전적 간행의지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장애를 받고 있다.

그리고 교육은 더욱 책임기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진학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따라서 교과서 읽기마저 보다 기능적인 단어와 숫자의 기에 규격화되고 있다. 텍스트 그 자체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책읽기의 훈련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기본적 문제를 우리는 지금 해결할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 상황에서 출판은 개별목록 몇권의 판매 부수나 학습참고서를 포함한 중간행숫자에 의지하여 출판의 발전이나 신장을 표방하려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버려야 할 단계에 온 것 같다.

그리고 출판사의 성격과 명예를 그저 저작자의 결과를 받아 기능적으로 제작하는 것만으로 얻을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다는 관념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할 요구가 있다.

80년대는 민주화의 시대로 규정될 것이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민주화를 시작하려는 요구로 쓰여졌고, 이제 불과 2년간 어떻게 하는 것이 민주화인가를 생각해보는 과정에 있다. 이 상황에서 출판 역시 같은 역할과 경험을 하고 있다. 이 역할과 경험에서는 출판도 물론 발언권을 얻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나라 문화의 창조와 그 교육적 책임에서는 출판의 지위가 특별하게 재인식된 것은 없다. 현시적으로 여전히 출판은 이데올로기의 전달용구이며 오락용 도서의 문제아처럼만 보이고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출판의 이름이 아니고, 또 더욱 출판의 명예가 될 수도 없다. 출판은 물론 좋은 책들을 간행했다. 독자에게 새로운 관심도 촉발시켰으며 연구업적들도 즉각적으로 볼 수 있게 기동성을 발휘했다. 그러나 책은 여전히 평균적 국민의 생활 속에서 친근하고 믿을 만하며 일생을 같이할 정신적 반려자라는 이미지로 있지는 않다. 이것은 80년대에 더 확고해진 느낌일 수 있다.

그리고 미디어는 바뀌고 있다. 뉴미디어도 아닌 비디오단계의 시장이 우선 확대되고 있고 곧 뉴미디어의 무료공급단계를 맞게 될 것이다. UCC(세계저작권협약) 가입에 의한 저작권의 합법적 사용의 요구도 점점 더 강요될 것이다.

이 점에서 출판은 지금 무엇인가 기반적 저력을 다져야 할 중요한 年代를 실은 정체적으로만 보내고, 더 중요해질 연대를 맞이할 준비에 너무나 부실해 있다.

출판문화의 총체적 비전을 새롭게 정리하며 진실로 다같이 모여 중심적 문화미디어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본격적으로 세워야만 할 것이다.